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, RA 유지윤



## 미 증시, 반도체 차익실현에도, 미-중 정상회담 효과 등으로 강세

#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14일(목)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(-3.4%), 샌디스크(-4.5%) 등 반도체 대장주 차익실현 압력에도, 양호했던 미-중 정상회담 결과 속 시스코시스템즈(+13.4%) 어닝 서프라이즈, 4월 소매판매 컨센 부합(MoM, +0.5%) 등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(다우 +0.7%, S&P500 +0.8%, 나스닥 +0.9%).

아직 중국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, 트럼프는 시진핑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필요성, 이란에 대한 군사 장비 미제공 등 미-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. 또 외신에 의하면, 미국이 알리바바,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10개 업체에 대한 엔비디아 H200 칩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.

사실 H200 수출 허용은 올해 초에 이루어졌지만, 중국의 자국 AI 산업 육성 정책, 미국의 수출세 부과 등으로 실제 판매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기는 했음. 현재는 관련 기대감이 엔비디아를 포함해 미국 증시 강세를 견인했으나, 주가 강세 모멘텀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H200 실제 수입 허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.

결과적으로 이번 미-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큰 갈등 없이 양호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. 이제 다시 주식시장은 미-이란 협상, 미국 금리 향방 등 기존의 대외 변수에 주목할 예정이며, 그 과정에서 “고점 부담 매도 vs 신규 추격 매수”와 같은 수급 공방전이 중간중간 전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4월 미 PPI 쇼크에도 AI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강세 속 미-중 정상회담에서의 엔비디아 H200 수출 승인 소식, 반도체 이외의 수급 분산 효과 등에 힘입어 1%대 강세로 마감(코스피 +1.8%, 코스닥 +1.2%).

금일 코스피는 미-중 정상회담 기대감 선반영,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약세 부담에도, 여타 AI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강세, 반도체 장비업체 AMAT의 어닝 서프라이즈(시간외 +1%대) 등에 힘입어 8,000pt 돌파에 나설 전망.

코스피는 5월 약 21% 폭등하는 랠리를 누리고 있지만, 외국인의 연쇄적인 대규모 순매도는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 있음. 5월 이후 8거래일 동안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금액은 약 20.2조원대에 육박한 실정. 아직 이번달이 끝나지 않았으나, 월간 기준으로 26년 3월(-35.7조원), 26년 2월(-21조원)에 이어 역대 3위의 월간 순매도 금액을 경신.

하지만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이 약 6,300조원대로, 올해 1~3월 4,000조원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할 필요. 시가총액 4,000조원대와 6,000조원대에서 1주당 매도금액의 절대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. 이런 측면에서 월간 일평균 시총 대비 외국인 순매도 금액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5월은 0.34%로, 지난 2월 0.47%, 3월 0.81%에 비해 낮은 수준(역대 1위는 2020년 3월 -12.5조원/시총대비 1.1%, 2위는 2008년 1월 -8.5조원/시총대비 1.0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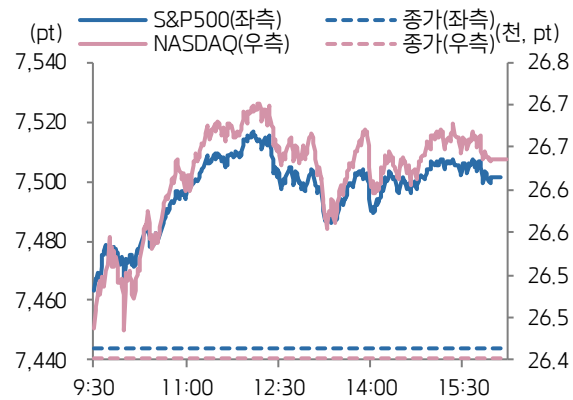
더 나아가, 외국인 순매도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. 2~3월 순매도 당시에는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노이즈 확산(2월말 엔비디아 실적, 3월 중순 마이크론 실적, 터보퀀트 사태 등), 전쟁 리스크 본격 확산 등이 그 배경이

있음. 지금은 메모리 업사이클 내러티브가 강화된 가운데, 미-이란 종전 협상 돌입, 양호했던 미-중 정상회담 등 2~3월에 비해 펀더멘탈, 지정학적 환경이 우호적인 편임.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부담 없이 차익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해석 가능.

결국 이번 외국인 순매도는 5월 이후 반도체(+41.6%), 자동차(+29.2%) 등 시가총액 최상위 대장주들의 단기 폭등에 따른 단순 차익실현 성격이 강하다는 당사의 기존 의견을 유지함. 5월 외국인 순매도의 대부분이 반도체(-16.8조원), 자동차(-0.8조원) 등 2개 업종에 집중된 점이 이를 뒷받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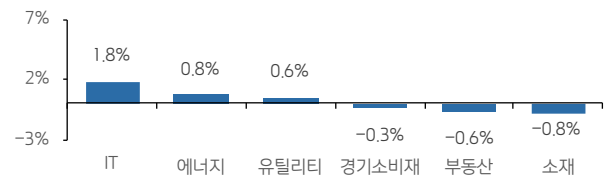
물론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 여진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, 차주 엔비디아 실적 이후 반도체주의 셀은 가능성 등 외국인의 순매도세를 강화하거나, 증시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킬 만한 이벤트들이 출현할 수 있음. 하지만 월평균 약 9.3조원씩 늘어나는 예탁금, 8.0배 초반에 있는 선행 PER, 약 890조원대로 상승한 코스피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등 증시 랠리의 동력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. 따라서, 외국인 순매도 역대급 강화 -> 증시 하락 추세 전환 -> 외국인 순매도 추가 가속화 -> 증시 전반에 걸친 자금 이탈”과 같은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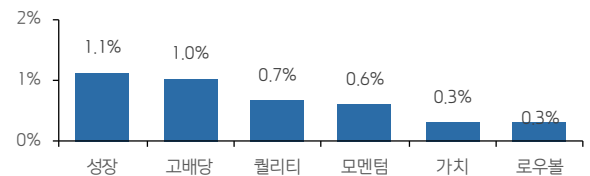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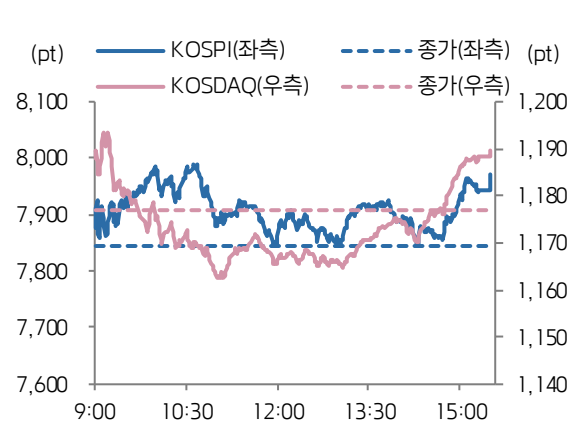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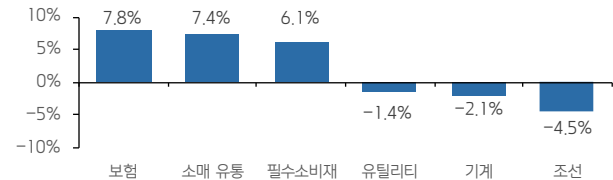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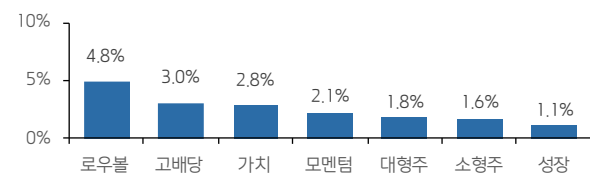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증가	DTD(%)	YTD(%)	종목	증가	DTD(%)	YTD(%)
애플	298.21	-0.22%	+9.69%	GM	77.75	+2.56%	-4.39%
마이크로소프트	409.43	+1.04%	-15.34%	일라이릴리	1,006.70	-0.89%	-6.33%
알파벳	401.07	-0.38%	+28.14%	월마트	132.46	+0.75%	+18.89%
메타	618.43	+0.29%	-6.31%	JP모건	299.91	-0.11%	-6.92%
아마존	267.22	-1.08%	+15.77%	엑손모빌	152.78	+0.8%	+26.96%
테슬라	443.30	-0.44%	-1.43%	세브론	186.64	+0.34%	+22.46%
엔비디아	235.74	+4.39%	+26.4%	제너럴일렉트릭	132.46	+0.8%	+18.9%
브로드컴	439.79	+5.52%	+27.07%	캐터필러	920.22	+1.99%	+60.63%
AMD	449.70	+0.94%	+109.98%	보잉	229.21	-4.73%	+5.57%
마이크론	776.01	-3.44%	+171.89%	넥스트에라	95.68	+0.9%	+19.2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	
코스피	7,981.41	+1.75%	+89.39%	USD/KRW	1,493.40	+0.28%	+3.74%	
코스피200	1,243.17	+1.88%	+105.15%	달러 지수	98.88	+0.36%	+0.56%	
코스닥	1,191.09	+1.2%	+28.7%	EUR/USD	1.17	-0.36%	-0.66%	
코스닥150	2,012.30	+2.02%	+30.05%	USD/CNH	6.79	-0.01%	-2.71%	
S&P500	7,501.24	+0.77%	+9.58%	USD/JPY	158.37	+0.32%	+1.06%	
NASDAQ	26,635.22	+0.88%	+14.6%	채권시장		가격	DTD(bp)	YTD(bp)
다우	50,063.46	+0.75%	+4.16%	국고채 3년	3.657	+1.5bp	+70.6bp	
VIX	17.26	-3.41%	+15.45%	국고채 10년	4.087	+3.2bp	+70.2bp	
러셀2000	2,863.09	+0.67%	+15.36%	미국 국채 2년	4.017	+3.8bp	+54.4bp	
필라. 반도체	12,073.78	+0.46%	+70.46%	미국 국채 10년	4.482	+1.3bp	+31.5bp	
다우 운송	20,057.41	+1.4%	+15.56%	미국 국채 30년	5.026	-0.7bp	+18.3bp	
상해종합	4,177.92	-1.52%	+5.27%	독일 국채 10년	3.043	-5.7bp	+18.8bp	
항생 H	8,858.63	-0.2%	-0.62%	원자재 시장		가격	DTD(%)	YTD(%)
인도 SENSEX	75,398.72	+1.06%	-11.53%	WTI	101.17	+0.15%	+77.46%	
유럽, ETFs		가격	DTD(%)	YTD(%)	브렌트유	105.72	+0.09%	+73.74%
Eurostoxx50		5,934.96	+1.26%	+2.48%	금	4,685.30	-0.45%	+6.32%
MSCI 전세계 지수		1,116.06	+0.61%	+10%	은	84.91	-4.47%	+20.27%
MSCI DM 지수		4,806.35	+0.6%	+8.49%	구리	656.75	-1.02%	+15.58%
MSCI EM 지수		1,716.75	+0.67%	+22.24%	BDI	3,189.00	+4.11%	+69.9%
MSCI 한국 ETF		190.52	+1%	+95.97%	옥수수	467.50	-2.76%	+2.86%
디지털화폐		가격	DTD(%)	YTD(%)	밀	658.00	-2.59%	+23.86%
비트코인		81,394.73	+2.16%	-7.13%	대두	1,192.50	-2.97%	+11.01%
이더리움		2,297.73	+1.54%	-22.84%	커피	275.70	-1.8%	-15.43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---

**Compliance Notice**

- 당사는 5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--

**고지사항**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---